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전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기독일보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아닌 새로운 기회”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 미주 한인 교계 공개 포럼 개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교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하고, 뉴노멀 시대에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날 변화를 전망했다. 미주 지역에서는 교단 교과 조율해서 처음으로 진행된 실시간 비대면 공개포럼으로 눈길을 끌었다.

포럼은 이상명 박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 김 사무엘 박사(인공지능 과학자), 민종기 목사(충현신학교), 박동식 박사(미주장로회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정요석 목사(세움교회), 이상훈 박사(미성대학교 총장), 박성호 목사(ANC 은누리교회), 강준민 목사, 김현경 박사(월드미션대학교 크리스천 상담학 교수), 정성욱 교수(테버신학대학원), 이종찬 대표(J&B 컨설팅) 등 미주에서 사역하는 12명의 신학자와 목회자, 전문가들이 12가지 소주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의 시대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들은 펜데믹 기간을 선교 위기의 때가 아닌 복음 전파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과 함께 유기적 교회로 비대면 예배의 신학적 근거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발표된 12편의 논문은 내달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각 발제자가 발표한 주제별 영상 또한 내달 유튜브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 펜데믹 시대의 선교: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기회

이상명 박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어도 우리는 새로운 펜데믹을 경험할 것이다. 우리는 이전의 표준은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원하지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온라인으로 개편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고승희 박사는 “2018년 당시 4차 산업시대와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의 인적, 물질 자원

의 90%를 인터넷으로 투자해 왔다. 지난 3월 펜데믹 직후에 인터넷으로 개척한 일본 교회는 일본 전역에서 온라인으로 1천명이 참여하기도 했다”라며 “인터넷을 통해 선교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고 펜데믹 기간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박사는 “펜데믹 기간 우리의 본질은 생존이 아닌 선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가졌던 옛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그동안 선교를 선교사나 사명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수행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호 박사는 “우리 자녀들인 Z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SNS를 사용하는 전 인류를 친구로 삼고 어떤 세대보다 세상과 가까이 살고 있다. 교회를 떠났던 이들에게 온라인으로 다가갈 수 있다”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성경적 크리스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찬 대표는 “펜데믹으로 인해 교회 현장 예배 참여가 제한되자 그리스도인들 안에 은연중에 내재돼 있던 ‘교회는 성스럽고 교회 밖은 세속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며 세상의 눈높이에서 일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했다.

◆ 펜데믹 시대의 요청: 영성 회복과 공동체 회복

강준민 목사는 “코로나 시대 격리의 시간, 멈춤의 시간, 수동태의 시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멈춤은 안식의 기회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만남과 배움의 기회”라며 “불평하지 않는 감사의 영성, 유연함과 적응력을 키워주는 소박함과 절제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현경 교수는 “위기와 고난은 자기의 삶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에 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중요하

다”며 “교회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 사회적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사무엘 박사는 “두려움에 쏟는 에너지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써야 한다. 지금까지 탐욕과 이기적 세속적 가치와 재물에 마음을 쏟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아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며 “부풀려진 두려움을 제거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종기 박사는 “역사를 돌아보면 전염병은 어느 시대나 존재했다. 그러나 전염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세상과 달랐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를 떠나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고 세상과 공감하며 공적인 영역에서 교회의 책임을 다했다”며 “교회 공동체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질,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 회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서울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730-0112, (323)735-318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어려운 때에 지역 사회 섬기겠다”

추수감사절 맞아 '사랑의 쌀' 나눠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금란연합 감리교회(담임 이석부 목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22일, 사우스베이 한미 한인노인회(회장 최흥규)를 방문해 사랑의 쌀 50포대를 전달했다. '추수감사절에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 지역 노인회에 속한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매년 10월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해 타인종 주민들을 초대해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나누는 일을 진행해온 나성금란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이웃 초청 잔치를 대신해 한인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섬길

계획이다. 나성금란교회 이석부 담임 목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길 위해 '사랑의 쌀'을 준비해 노인회에 전달했다”며 “어려운 때 더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도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 사회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을 섬기고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쌀을 기부 받은 사우스베이 한미 노인회 최흥규 회장은 “이런 힘든 시기에 노인회를 생각해주시고, 귀한 사랑을 나누어 주



사우스베이 한미 한인노인회를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서 정말 힘이 된다”며 “역사가 오래된 나성금란교회와 노인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유대 관계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감사

전했다. 한편 38년의 역사를 가진 나성금란교회는 주일 아침 8시 유튜브 실시간 예배, 오전 11시 한어부 예배

와 오후 1:30분 영어부를 야외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krunc.org 이다. 김동욱 기자

LA 보건국, 존 맥아더 교회에 ‘코로나 제한 조치’ 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교회 예배 모습 ©페이스북

미국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이 지난달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Grace Community Church)’를 상대로 시행한 코로나 발병 관련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6일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다.

LA 카운티는 2주 내에 최소 3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예배 장소를 보건 당국에 보고할 수 있고, 보건국은 해당 기관의 발병 여부를 결정한다.

존 맥아더(John MacArthur) 목사가 담임하는 이 교회는 웹사이트를 통해 “LA 카운티 보건국으로부터 코로나 19 발병이 해결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또 “공중보건 관계자들이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교회에 대한 모든 발병 관련 요구 사항과 제한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회측 변호인은 제나 엘리스(Jenna Ellis)는 지난달 발생한 3건의 감염과 관련하여 7000명이 넘는 출석 인원을 감안할 때 그레이스 교회는 ‘급증(outbreak)’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무도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독감 유행철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없을 때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던 적은 없다”면서 “생존율 99.98%를 가진 바이러스 속에서 LA시가 교회를 무기한 폐쇄하

는 것은 위헌이며, 종교의 자유로운 운동에 해롭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LA시는 심각한 ‘대유행(widespread)’ 상태에 해당하는 1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LA시는 실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인 야외 모임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이어오다가 캘리포니아주와 LA시와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9월 LA 카운티 고등법원은 이 교회의 대면 실내 예배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교회측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치만으로 교회의 폐쇄를 정당화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LA카운티 고등법원 미첼 L. 베크로프(Mitchell L. Beckloff) 판사는 9월 24일에 열린 청문회에서 맥아더 목사와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가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로서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진 기자

남가주교협 제51대 회장으로 제임스 조 목사 선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 교협)는 지난 9일, 임마누엘대학교에서 제 51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제 51대 회장으로 제임스 조 목사(조병국 목사)를 선출했다. 또 총무에는 홍용표 목사, 사무총장에는 심진구 목사를 선임했다.

제 51대 남가주 교협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 교협 자체 사무실과 사무국을 확보하고, 재단 이사회와 상임이사회 구성과 더불어 증경회장단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남가주 교협은 내년도 비전을 “주님처럼 일하며 섬기며 소통하는 교협”으로 삼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남가주 교협은 내달 21일(월)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담요와 마스크,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월에는 마틴루터킹데이를 기념해 한류 화해행사와 소강석 목사 초청 부흥 세미나, 교회 법률 세미나를 주최할 계획이며, 대

전 열방 교회 임택 목사 초청 목회자 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DNA 전 세 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3월에는 그랜드 캐년에서 남가주 교협 목회자 수련회, 4월에는 나점일 목사 초청 교회성장 세미나와 부활절 연합예배, 5월에는 미술 공모전 및 불우 학생에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또 6월과 7월에는 신학 세미나 및 차세대 부흥 세미나, 8월에는 광복절 기념예배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 교협은 회기 중 남가주 교협 50주년을 기념하는 책자를 출간할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김동욱 기자



제 51대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조병국 목사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별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APPLY or TRANSFER NOW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GOD FIRST SINCE 1899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Phone: (626) 857-2200 Email: koreanprogram@apu.edu www.apu.edu/seminary/korean-program

웨스트힐장로교회 “팬데믹 기간에도 우리 사명은 영혼 구원”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오명찬 목사)가 코로나19로 교회 사역이 움츠러든 상황에서도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행복나눔축제’를 개최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의 노력과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웨스트힐장로교회는 축제를 준비하며 매일의 기도문을 제작해 40일 동안 영혼구원을 위한 40일 중보 기도를 진행했으며,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주 7일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새벽예배에서도 중보기도를 이어왔다.

축제 전 1주일 동안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특별새벽예배를 개최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과 열정이 회복되길 촉구했다.

행사 당일에는 웨스트힐장로교



웨스트힐장로교회 ‘행복나눔축제’에서 설교하는 오명찬 목사 ©유튜브 캡처

회는 전도 대상자가 온라인 생방송 도록 도왔으며, 예배의 모든 순서도 들지 않도록 기획했다. 으로 주일예배시간에 접속할 수 있 초신자 및 불신자들에게 거부감이 또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

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교역자들이 인사하며 환영하는 동영상을 제작해 교회 섬김이들이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온라인 예배 참여자들에게는 오프라인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집으로 새가족 선물을 보냈다.

오명찬 목사는 “팬데믹 기간에도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영혼 구원”이라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보다 더 우선적이거나 중요한 일은 없기에 기도로 ‘행복나눔축제’를 준비 했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또 “행복나눔축제와 추수감사주일을 함께 하면서 영육간에 ‘추수’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제니퍼 오 신임 부소장 선임



신임 부소장 제니퍼 오

한인가정상담소(KFAM)가 신임 부소장에 제니퍼 오(Jennifer Oh), 전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를 12월1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제니퍼 오 부소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가정폭력 프로그램 매니저로 한인가정상담소에 근무하며, 가정폭력 부서를 직접 출범시킨 장본인이다.

한인가정상담소로 복귀하기 전 오 부소장은 트라우마 전문 심리상담전문가로 개인 심리전문상담소를 운영하였다. 이전 10여년 동안 메리베일(Maryvale)과 스타뷰(Star View)에서 위탁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뉴데이(New Day) 생활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에서 전문 심리상담전문가로 근무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경험을 갖춘 베테랑이다.

오 부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한인가정상담소의 사명처럼 이민가정과 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美 캘리포니아 의원들 “코로나19 봉쇄령 시민불복종 지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이 새 코로나19 봉쇄령에 반대해 시민불복종 운동에 나선 이들을 옹호하고 나섰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8일 보도했다.

지난 17일 발효된 봉쇄령에 따르면, 골든스테이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94%가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중 41개 카운티가 현재 가장 엄격한 봉쇄 수준인 보라색 단계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유바시(市)의 제임스 갤러거(James Gallagher) 주 의원이 주민들에게 새로운 봉쇄령에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갤러거 의원은 CP에 공유한 성명서에서 “주지사를 비롯한 주 관료들은 카운티에 색상 코드로(봉쇄) 명령을 내려서 그들의 방향대로 규칙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기본(원칙)은 여전히 동일하다. 우리 모두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오직 여러분들이 허락한 것만 가져갈 수 있다. 난 여러분의 사업장, 교회, 학교를 꼭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페이스북

히려 문을 열고 격려하고 싶다. 추수감사절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여러분들 모두 책임감이 있는 성인으로서,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어떤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다. 신중해져라. 우리가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인식하라. 이는 일부 음식점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했다.

갤러거 의원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데 최선을

을 다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로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낼 것”이라고 했다.

주정부의 봉쇄령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그만이 아니었다. 캘리포니아 주 새년 그로브(Shannon Grove) 상원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가 98%의 생존율을 기록 중이라거나 봉쇄령으로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교회는 꼭 열려 있

를 간절히 바란다!!! 자살, 절망, 아동 학대, 고독, 가정 폭력,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교회는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특별히 지금 시기에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키우시기를!!!”이라는 글을 남겼다.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나파 카운티의 고급 레스토랑인 프렌치 런드리(French Laundry)에서 열린 로비스트 제이슨 키니(Jason Kinney)의 생일 잔치에 참석해 비난을 받았다. 키니는 오랫동안 뉴섬 주지사의 고문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이 식당은 와인을 제외하곤 끼 식사가 1인당 350달러로, 9가지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서던캘리포니아주 멜리사 멜렌데즈(Melisa Melendez)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뉴섬 주지사는 주 전체의 통행금지를 고려 중이다. 프렌치 런드리와 같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열린 로비스트 생일 잔치에 갈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가서 ‘내가 나쁜 실수를 했다’고 말하면 된다. 여느 때처럼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지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원목사(예수전도단), 주선영교수(장신대 영예교수), 이영희교수(에스더대표), 송정영목사(복음전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빌리이주대표), 신광원목사(복음전대 대표), 유관지목사(홍익포럼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수록 빛은 그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복한 간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교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옮겨지는 기록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복음선교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 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달려봐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2021 밀알 장애인 장학생 모집

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1년에도 다음과 같이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혜대상**
 - 밀알장학생 :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을 full-time으로 재학중인 장애인)
 - 꿈나무장학생 : 00명 (사망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근로복지생 : 0명 (미주 각 지역 밀알선교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 제출서류**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밀알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2. 꿈나무장학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재학증명서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앙 간증문 (최소 500 단어)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3. 근로복지생**
 - 신청서 (남가주밀알선교단 소정양식)
 - 본인 신앙 간증문 (최소 500단어)
 - 수입증명서 (예: 최근세금환급 (Tax Return), 최근 3개월 월급명세서(Pay stub), 고용주의편지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경제적 도움 받는 곳으로부터 편지, 수입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등)
 - 추천서 2매 (출석교회 담임사역자 및 소속학교 담당지도교수)
- 장학금액**
- 밀알 장학금 & 근로복지금: 1인당 \$3,600.00 (매달 \$300 지급)
 - 꿈나무 장학금 : 1인당 \$1,000.00 (일시 지급)
- 신청마감** 2021년 1월 29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 표** 2021년 2월 26일(금) 개별통보함
- 수여식** 추후발표



밀알선교단 장학복지위원회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 562-229-0001 | F: 562-229-0006 | E: office@milalmission.com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83

“팬더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2)”

그렇다. 팬더믹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지 못했다. 세계 팬더믹은 제2차, 제3차 확산이 발생하면서 열방의 문들은 닫혔다. 열렸다가 반복하는 상황이 되었다.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2020년 가을철 비전스쿨이 북미 전체에서 지부별로 열렸다. 봄철과 동일하게 줌 동영상으로 지부별 비전스쿨이 열렸는데 참가한 수는 봄철보다 더 많았다.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 참가자들의 영적 상태가 헤이해 질까 지부 스텝들은 이전보다 중보기도 시간을 더 많이 두고 그들을 위한 기도회에 힘썼다.

엘에이에서 열렸던 목회자 비전스쿨에 참여하였던 S목사는 과거 인터콧 선교회를 배척했던 분이였다. 비전스쿨이나 단기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을 가졌다 했다. 필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림에도 계속 발전되어가고 있는 이 선교단체를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여 이번 가을철 목회자 비전스쿨에 참여하였다. 감사하게도 S목사는 서부의 비전스쿨 본부였던 엘에이 새누리교회에서 열린 현장 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본부에는 실제 정원 20명으로 제한하여 강사와 예배팀 등 제한된 인원과 선별된 10명 정도의 훈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렇게 1주 차부터 비전스쿨에 참여하면서 S목사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했다. 때문 눈 시울을 적시며 현지 선교사의 강의를 들었고, 세계 선교의 현황을 들으면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종교 현황과 우리 선교팀들의 약점들을 들으면서 선교 참여의 결단이 들었다 했다. 그는 지금까지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였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주제로 우리 선교회의 사역을 알리고 싶다고도 하였다.

필자도 12년 전 비전스쿨을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은 이 선교회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였다. 필자 역시 몇 주간 강의를 들으면서 차츰 선교의 비전을 다시 갖게 되었고 현재 선교 동원가로서 또한 지금은 멕시코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어 있다. 이번 가을철 비전스쿨도 9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미주 전체의 지부에서 각기 모든 수료식을 마쳤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2주 혹은 3주 과정의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1차 팀 130명은 12월, 2차 팀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100여 명은 1월 중에 총 8개 나라로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팬더믹이 확산되었던 지난 여름철보다 여러 나라가 국경의 문을 열고 미국인들의 입국을 환영하고 있다. 감사한 일이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확신하고 있다.

필자의 큰 딸이 담당하고 있는 미주 Youth 팀은 레바논 등 4개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Kids 팀은 부모들의 염려로 인해 신청자가 60명에 이르렀다가 현재는 5명 정도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들을 후원하는 전체 기도자들이 계속 기도 중에 있다.

세상은 어렵다 하는 이 시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회라는 마음을 갖는다. 어려운 때에 멀리 타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을 찾은 선교 순례자들을 그들은 반겼다. 오히려 더 환영해 주었다. 자신들의 집을 끼껴이 열었다. 팬더믹으로 이웃들은 집에 초청하지 못하지만 가족들은 초청할 수 있어서 멀리 있는 가족들을 불러서 같이 모여 단기선교팀을 환영한 가족들이 생겼다. 팬더믹이 이루어낸 또 다른 단기선교의 가정방문 사역의 모습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교회가 승리한다. 팬더믹이 교회의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없다. 이 시기를 이겨낸 교회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동지 안에서 멈추어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동하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진하는 교회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필자가 사역하는 멕시코 신학교의 정문 외벽에는 큰 글씨로 “Heme aqui, enviame a mi”라 쓰여있다. 이 사야 6:8에 주님이 탄식하시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실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한 이사야의 선포가 쓰여있다. 우리는 그 선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8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인류 최초로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그의 존재를 알리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임을 밝힙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생애 그리고 기독교 선교역사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브로를 살펴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들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첫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조력자 마가 요한이 안디옥을 떠나 첫 선교지로 방문한 곳이 구브로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행 4:36). 이 선교팀의 최연장자인 바나바가 선교 여행의 초반에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에서 선교를 제안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시칠리아, 사르데냐 다음으로 지중해에서 3번째 큰 섬입니다. 터키 아나톨리아 남쪽에 자리 잡은 구브로는 지리상으로는 서남아시아로 분류되지만, 유럽처럼 느껴집니다. 구브로는 북쪽으로는 터키, 동쪽으로는 시리아-레바논-이스라엘, 서쪽으로는 그리스,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접하고 있어 고대 제국들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구브로의 역사는 선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비너스라고 불리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가 전쟁의 신 아레스의 광장이라는 의미인데 그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을 나눕니다. 이외에도 구브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또 스토아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이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 무역상 아들이었던 제논이 아테네에

이주해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서양 문학의 원조인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 구브로가 등장합니다. 이런 고전들에 구브로가 등장하는 것이 구브로의 오래된 역사를 말합니다.

구브로는 성경에서도 구약부터 등장합니다. 구약의 ‘깃딤’(창 10:4, 민 24:24, 대상 1:7, 사 23:1, 12, 렘 2:10, 겔27:6, 단 11:30)이 구브로입니다. ‘깃딤’은 ‘괴롭게 하다’란 의미의 히브리어의 키티에서 온말로 과거 이 섬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을 때 구브로에 있던 도시인 키티온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행4:36)이었고,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 나손의 고향(행21:16)이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구브로는 여러 제국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B.C. 707-669년 기간에 구브로가 앓수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B.C.570-545년까지는 애굽의 지배를 받습니다. B.C.333년에는 알렉산더 대제가 지배하고, B.C.57년에는 로마에 점령되고 로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 시대에 구브로는 로마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황제령이 되었으나 후에 원로원에 소속되어 대리 총독으로 불리는 집정관이 다스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서기오 바울이 대리 총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 선교의 첫 열매였습니다. 기독교 첫 선교사들의 첫 선교 열매가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한국 제주도의 5배가 되는 대형 섬입니다. 구브로는 시리아 해안에서도 96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대인들도 이곳으로 많이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이 구브로를 방문할 당시 여러 개의 유대인 회당(행13:5)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구브로에는 상당한 재력을 가진 다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브로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의 본명은 조셉이었으나 격려와 위로에 탁월했던 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권위자(勸慰者)라는 의미인 조셉의 별명 ‘바나바’는 기독교 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바울을 동역자로 초청해 동역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바울에게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되어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훗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유대인 폭동 때 돌에 맞아 순교한 후 구브로에 묻혔고, 그의 무덤은 현재 구브로의 중요한 관광명소입니다. 또한, 바나바를 기념하는 바나바 수도원이 구브로에 아직도 운영 중입니다.

구브로에는 나사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기적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무덤이 구브로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배를 타고 난파당한 후 기적적으로 구브로에 도착한 나사로는 30년간 구브로에서 선교하다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 기념교회가 구브로에 있어서 현재 중요한 관광명소가 됩니다. 아울러 바울이 선교 중에 채찍에 맞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영국 성공회)가 구브로에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사랑과 성금! 행복의 비밀입니다!

World share USA가 LA에서 특별한 사랑과 성금을 시작합니다. 월드쉐어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는 최첨단 기지에서 뛰어드는 코어와 현대 빈곤 해결을 사명으로 후원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한 교회의 추수감사 장식. ©이대웅 기자

추수감사절 유래와 의미

추수감사절(추수감사주일)에 대해 궁금해하는 일반인들이 많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무엇일까? 간접적으로는 친구약 성경, 직접적으로는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이다.

구약 성경의 맥주절(the Feast of Harvest)이 추수감사절과 관련이 있다. 맥주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wheat) 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였다(출 23:16, 34:22).

그러나 11월 셋째주 주일에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의 직접적이고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Pilgrims)의 '감사'에 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다.

청교도들이 북미로 오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 헨리 8세와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이어진 종교 박해였다.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불리는 영국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한 것이 직접적인 유래에 해당한다.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 스

피드웰(Speedwell)과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 물이 새 다시 귀항했다.

한 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대서양) 중부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메사추세츠 케이프 코드(Cape Cod)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탐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63일간 3,400마일(5,440km)의 멀고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닿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와 명명했다.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일을 배 안에서 보냈다.

그들은 항해 동안 어떻게 보냈

가? 찬송을 많이 불렀다. 그들은 후일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

청교도 개척자들은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협,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해(1620-1621) 겨울, 2-3개월 내 도착했던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

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져 질병으로 신음했다.

이러한 가운데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땀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그해 가을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도다(시 126:6)". 청

교도들은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

결국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했다.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둘째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고, 셋째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사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pumpkin pie)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됐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신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1623년 정착지 플리머스 책임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선언했고, 1789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했다. 추수감사절은 지역마다 날짜가 제각각이었으나, 1863년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의해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통일됐다.

한국에서는 1908년 예수교장로회 제2회 대한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감사일'로 정했고,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1회 총회에서 음력 10월 4일로 제정했다.

이후 1914년 제3회 총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도착했던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조정했고, 1921년 장로교와 감리교 연합회의 회에서 매년 11월 둘째주일 후 수요일에 기념하기로 결의했다.

현재는 예장 통합 총회가 10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 이대웅 기자

2020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FWD2020 회의, “건물 교회보다 온라인 교회에 주목”

크래프트 목사 “칙필레의 성공 방식에서 큰 영감을 얻어”

미국의 '지역 교회 미래'를 위한 회의(Future FWD2020 Conference)에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앙결신을 환영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린 FWD2020 회의에는 교회발전기금 캐피탈(CDF Capital) 더스티 루벡(Dusty Rubeck) 사장을 비롯해 리더십 개발, 목회자 및 인력 양성 업체들이 후원하는 가운데 교회의 미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펜실베이니아주 만하임에 본부를 둔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Lives by Christ)' 교회의 담임인 데이비드 애쉬 크래프트(David Ashcraft) 목사는 '칙필레(Chick-Fil-A)' 회사의 성공 방식이 교회의 목표를 바꾸는 데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크래프트 목사는 영상 회의에서 "그 회사는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들여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킨을 주기 위해 그

들은 존재한다고 말한다"며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마치 사람들을 우리 건물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던 것처럼 행동해 왔다"고 덧붙였다.

15개의 캠퍼스를 가진 이 교회는 리더십 팀들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데에 동의했다고 그는 밝혔다.

크래프트는 교회 건물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음에도, 자신의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참석을 동등하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절반은 준비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캐나다 코넥서스 교회(Connexus Church)의 제프 브로디(Jeff Brodie) 담임목사는 성직자들이 가상 경험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에



18일 회의에서 펜실베이니아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교회'의 담임인 데이비드 애쉬 크래프트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Future FWD2020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우리 기관(institutions)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빠르게 영향력을 얻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며 "플랫폼(platforms)은 사람들이 몰

리적 장소보다 더 많은 해답을 찾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과 물리적 세계가 혼합된 형태가 가까운 미래를 지배한다고 주장하며, 참석자들

각자가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갑자기 교회를 찾게 된 사람들은 설교의 수준(83%), 지도자의 환영(79%), 예배 방식(74%), 장소(70%) 등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당시에는 37%만이 교회를 찾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올해 초 구글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첫 달에만 50%나 종교적인 주제나 기도에 대한 검색이 급증했다.

CDF 캐피탈사의 더스티 루벡 사장은 "꿈을 가진 리더는 훌륭하지만, 꿈과 계획을 모두 가진 리더는 위대한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루벡은 이어 "기근의 종말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이 대유행의 끝은 이야기의 끝이 아닐 것"이라며 "지도자들이여, 우리는 눈을 떼지 않고 저 먼 지평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유진 기자

미 남침례교, 새 선교사 79명 파송식 온라인 개최

미국 남침례교(SBC)가 79명의 새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하 기념 영상을 페이스북과 더 킹덤 앱을 통해 18일 공개했다고 벵티스트 프레스가 최근 보도했다.

SBC 국제선교회위원회(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가 임명한 이 선교사들은 미국 21개 주에서 파송을 받아 IMB와 우호 관계가 있는 8개 나라에서 봉사하게 된다.

영상은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앨라바마 노래남녀 합창단이 'No More Night'를, 웨이드마운틴 침례교회 합창단이 'Total Presentation'을 공연했다.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 IMB회장은 남침례교인들이 국제선교회를 지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 하며 "오늘 밤 79명의 선교사들이 새로 파송되어 흥분된다. 기도와 기부를 통한 여러분의 관대함 덕분에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보내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영상은 전 세계에 매일 15만 4937명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송 선교사들의 간증을 소개했다.

오클라 노르만의 벤엘 침례교회 소속이며 태국으로 파송될 로버트와 엘리자베스 본(Robert and Eliz-



남침례교 국제선교회위원회가 주관한 온라인 선교사 파송식에서 각 권역별 선교사들이 소개되고 있다.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온라인 영상캡처

abeth Bourne) 가정은 단기 선교 여행에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를 흔들어서 놓았다"고 고백했다. 약사인 로버트는 의료 봉사 선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람들의 육체를 치

유하며 예수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하마의 엠마우스 성경교회 소속인 조쉬와 레베카 스토리(Josh and Rebekah Storey) 가정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의료 선교사로서 파송될 예정이다.

영상에서 조쉬 선교사는 "5명의 소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가려

면 당신은 미쳤거나 부름을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고 그러자 그의 아내 레베카는 "둘 다"라며 "우리는 빨리 시작하고 싶다"고 전했다.

조쉬 선교사는 "그분은 당신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끔 평생 동안 우리를 준비해 오셨다"며 "우리는 아버지에 의해 부름을 받고, 복음에 의해 강권을 받으며, 아들에 의

해 위임되어,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선교사는 IMB와 함께 런던에서 근무하던 제시카 바니에비치(Jessica Baniewicz)는 스페인 파송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서 기쁨에 몸부림 쳤다고 밝혔다.

바니에비치 선교사는 "하나님은 나에게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셨고, 그분의 충분하심을 보이셨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혼이나 가정을 가지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녀는 파송될 바르셀로나의 복음주의 인구는 2% 미만으로 헌신적인 기독교인 숫자는 이보다 낮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간증 외에도, 파송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갖게 될 직책에 대해 설명했다. 대외적인 직함으로는 미주 지역의 미디어 전문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스포츠 및 비즈니스 전도사, 남 아시아 지역의 여성 사역 전략가 등이 사용될 계획이다.

올해로 175주년을 맞는 IMB는 2020년 로터문 크리스마스 선교사 기금을 위해 1억 7500만 달러를 모금 목표로 삼고 있다. 파송 기념 영상은 imb.org/send에서 검색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박사/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소강석 합동 총회장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되자”

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



대회장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한국교회 연합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2021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대회장을 맡은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 새에덴교회)가 내년 4월 4일 개최되는 예배를 한국교회 연합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모든 밥그릇, 기득권 다 내려놓자”고도 했다.
소 목사는 11월 23일 오후 5시 예장 합동 총회회관에서 열린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출범예배 설교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동로마교회가 무너진 역사를 보면, 얼마나 교회의 분열이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소 목사는 “코로나가 왔을 때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으로 맞느냐 아니냐 논쟁했다. 한쪽에선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자고 하고 다른 곳에선 현장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언론의 지탄을 받았다. 가슴 아프고 서글펐다”고 했다.
소 목사는 “한국교회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되어야 한다. 하나되어야 한국교회를 세울 수 있다”며 “각 교단의 총무님들, 취재하러 온 언론사들 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의 연합기관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기독교 생태계는 동로마 영

토가 작아지는 것처럼 좁아지고 있다. 이것이 눈에 보인다”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한국교회가 ‘원 어게인’, 다시 하나되는 위대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2021년이 한국교회가 하나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천국에 가서도 부끄럽지만 이런 일이라도 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마음을 모아 달라. 밥그릇 다 내려 놓고, 한국교회의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다시 한 번 한국교회를 세우는 부활절연합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사말씀 순서에서 다시 단에 오른 소 목사는 “현장을 다니며 동로마제국의 역사를 정확히 공부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되게 할 것인가 현장수업을 하며 구상했다. 존경하는 총무님들께서 마음을 모으면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퍼포먼스의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빛으로 하나되어 한국교회를 지키고 반기독교의 악법을 막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경호 기자

이영훈 목사
“차별금지법 저지, 한국교회 뭉치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
이 목사는 20일 시작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첫 번째 강사로 나서, 이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차바아’ 시즌2에서는 이영훈 목사를 시작으로 은누리교회 이재훈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전면에 나선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을 선두로 교단, 연합기구 등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왔다면, 향후에는 일선 교회들의 전방위적인 연합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강연에 앞서 차바아 행정 담당인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는 “잔반이 있는 내용의 경우 거리를 두고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며 “세계에서 가장 큰 단 일교회이자 국내의 영향력이 막강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호히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했다.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강연에 나선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국회는 한 정당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 그럴듯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과잉차별, 역차별법”이라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이다. 일천만 크리스천이 교과를 초월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의 모든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단호히 했다.
이 목사는 “현재의 법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의도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성 소수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완전히 차단하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그는 “첫째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성소수자들을 핍박하거나 차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가진 자 못 가진 자, 성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하고 존중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유튜브 캡처

야 한다는 것을 저희도 지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소수자들도 사랑한다. 예수님도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는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라며 “창조 원리의 파괴는 무출산으로 인한 인류 재앙을 가져올 것이고 결국 종족 번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저지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되고 모든 것이 멈춰서는 인류가 될 것”이라며 “동성간 결혼은 성경적으로도 허락하지 않는 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기본을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셋째로 동성애는 청소년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괴한다. 많은 청소년이 동성애의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가 몸과 마음 다 망가져 후회와 자책감 속에 있다”고 했다.
이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국은 어느 나라든 볼 수 없을 정도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독버섯처럼 퍼져 나가고 있다”며 “1년에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가 3조가 넘는다. 3조가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동성 간 성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고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선 안된다”고 했다.
송경호 기자

Grid of church advertisements including: 토레스 조은교회, O.C. 엘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김우준 담임목사, Cornerstone Church, 박정우 담임목사, 구봉주 담임목사, 오병익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남가주벤엘교회, 남가주동신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남가주새소망교회, NEXT 사랑의교회, LA 임마누엘교회, 늘푸른선교회, 남가주늘사랑교회, 다 감사교회, 다운니제일교회, 미주비전교회, 샘물교회, 엘바인 침례교회, 은혜한인교회, 함께 걷는교회, 남가주새생명교회, 이영훈 목사, 김일권 담임목사, 리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베델교회, 김한요 담임목사, 박신용 담임목사, 알바인은누리교회, 남성우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기독교일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개강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티셔츠, 주머니제작, 259 221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갑상선 당뇨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뻣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거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배배는 숙변 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성직자 미디어 출연의 명암(上)

‘무소유→풀소유’ 득보다 독이 된 헤민 스님 TV 출연의 교훈

미디어 출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신상털기’ 일부 성직자들 때문에 종교계 전체가 조롱거리 기독교 교역자들과 신앙인들에게도 ‘타산지석’

◆성직자와 미디어: 미디어 출연에 뒤따르는 신상털기

종파나 교단을 막론하고, 성직자에게는 높은 도덕적 품성이 요구된다. 대중이 그들에게 갖는 도덕적 기대치는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기대치에 비교해볼 때 훨씬 높다. 그리고 이런 기대치는 특정 성직자가 미디어에 출연하는 경우 배증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출연한 프로그램 혹은 채널 영상에서 약간의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동시에 신상털기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 신상털기는 자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미디어 상에서 오랜 시간 쌓은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위선과 가식으로 밝혀지는 일이 순하게 벌어진다.

콘텐츠의 자유도가 높고, 애초 일반인 자격으로 활동해 그 도덕적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일부 유명 유튜브버들조차 실언이나 방송 사고 때문에 제기되는 의혹, 그리고 그에 따른 신상털기로 유튜브 활동뿐 아니라 아예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게 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이다.

최근 유투버 썬양의 뒷광고 의혹이나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한 출연자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에 대한 폭로 사태만 보더라도, 미디어 출연자들에 대한 대중의 날선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성직자가 적극적인 미디어 출연을 감행하는 경우, 이보다 몇 배는 더 엄정한 검증 기준 앞에 서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헤민 스님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출중한 학력, 준수한 외모, 흡입력 있는 저술활동으로 세간에 불교 가치관에 따른 비움의 삶을 실천하는 승려이자 유능한 청년 멘토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2016년부터 본격화된 방송 출연 이후 여러 차례 대중의 기대감을 배신하는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건물주 논란을 두고 네티즌의 신상털기가 이루어지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사찰에서 수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울 삼청동 소재,

남산이 정면에 내다보이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한 삶을 영위하며, 남는 공간으로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으로만 불교적 실천의 삶을 가르치는 위선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덕분에 신조어도 생겨났다. ‘무(無)소유’가 아니라 ‘풀(full)소유’의 삶을 살고 있다는 조롱섞인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행복을 가르쳐온 터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표리부동한 성직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입장에 처해 있다.

만약 그가 종교 저술가가 아니라 일반 작가였다면, 이와 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히려 저술활동 및 여타 사업을 통해 성공한 작가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만물의 공(空)함에 대한 깨달음을 삶의 실천의 대전제로 삼는 선(禪)불교 승려이다. 성직자라는 특별한 신분이 그가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그에게 불교적 실천의 삶을 기대해 왔다. 그것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 하나의 간절한 바람과도 같았다.

물질의 소유 정도로 삶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 버리는 한국의 각박한 자본주의 현실에서 종교적인 수행과 사고전환을 통해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간에, 많은 이들의 마음에 위로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런 위로를 전해준 당사자 역시 물욕에 젖어 사는 듯한 현실이 관측되면서 기대감은 배신감으로 돌변했고, 결국 신상털기가 시도되면서 전국적인 비난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성직자와 신상털기: 해당 종파 전체를 조롱하는 신상털기

한국에서 신상털기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온라인 세상이 펼쳐지면서부터이다. 대상 인물에 대한 대중



최근 실언과 부적절한 행각으로 신상털기의 표적이 된 불교 승려 헤민. ©tvN

의 근거없는 오해와 감정적 적대감을 증폭시켜, 결국 마녀사냥으로 귀결되는 일들이 빈발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신상털기의 주된 목적이 타인에 대한 적개심과 조롱을 즐기는 악의적 유희에 있다는 점이다.

신상털기에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순기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숨겨진 과오와 문제점을 들춰냄으로써, 미디어 출연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2000년대 이후 미디어에 출연하는 이들의 도덕적 경각심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신상털기가 대개 악의적인 의도로 시작되며, 이에 따라 신상털기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 대한 과도한 편견을 고착화시킨다는 문제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2018년 4월,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이성식 교수는 신상털기의 유희적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형사정책 제30권 1호, '신상털기의 실증연구에서 원인 및 기회증폭과 통제요인들의 통합작용 모색'). 양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신상털기의 주된 원인이 호기심과 재미, 집단적인 응징에서 얻어지는 쾌감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디어 출연을 고민하는 이들, 특히 성직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여타 종교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세속적 가치와 욕망보다 고결하고 영속적인 초월을 지향하는 삶을 살 것을 요구받는다. 대중의 요구 이전에 각 종교의 가르침 자체가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그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들이 미디어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즉각

적으로 악의적 유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 여파는 성직자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통상 그가 속한 종파나 교단 전체에 대한 실망섞인 조롱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고결하고 숭고해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없다면, 그 가르침의 신빙성과 가치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또한 해당 종파의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할 인물을 미디어에 출연시키면서 최소한의 자체적인 검증조차 하지 못하는 무능함 또한 웃음거리가 된다.

신상털기의 유희적 속성이 적용되면서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 자체를 하나의 우스운 놀이 대상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헤민 스님을 둘러싼 논란은 불교계 전반에 대한 대중의 실망감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해당 종교의 가르침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태를 초래했다. '풀소유'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이런 조롱의 정서를 대변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비단 불교계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기독교계에도 과거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적 있다.

이번 헤민 스님 사태는 종파를 떠나 한국 종교계 전체에 불행한 일이다. 대중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진지하게 각 종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직자와 신앙인들의 열심과 진지함이, 일부 성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때문에 줄지에 부정되고 희화화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미디어 출연을 통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인기에 영합해 이익을 얻으려 한 일부 성직자들로 인해 해당 종교계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이번 사태는, 기독교 교역자들과 신앙인들에게도 하나의 귀중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사례라 여겨진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형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수아즈 데리다의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각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방송에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감성"이라고 가르치던 승려 헤민. ©tvN



'무(無소유)'가 아닌 '풀(full)소유'라는 신조어를 낳은 승려 헤민 논란을 다룬 콘텐츠. ©유튜브



온라인-모바일 세상이 도래하면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한없이 용이해짐에 따라, 신상털기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픽사베이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때로는 '멈춤' 도 필요해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 필요... 공황장애도 '극복'



6주 만에 끝내는 공황장애 치유법 김영화 에이트박스 | 204쪽

코로나로 불안한 시대에 마음이 위험한 이들을 위한 치유책!

많은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간 공황장애는 이른바 '연예인병'으로 불려왔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은 남녀노소 모두 공황장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내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답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멈춰 기도
기도 마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되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삶은 새로운 힘 될 것

코로나 이후 중요해진 것이 있다. 시간이다. 빨랐던 시간이 더 빨라졌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 발전은 다른 나라가 흉내내기 힘들 만큼 빠르게 이루어졌다. 급속한 회복은 물론, 세계 경제 대국의 자리까지 차지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후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것들이 온라인으로 옮겨졌다. 온라인의 장점은 빠르다는 것이다. 저녁에 시킨 물건이 새벽 배송으로 도착한다. 집에서 끓이는 찌개보다 배달 오토바이가 일찍 도착한다. 코로나로 멈춘 것보다 빨라진 것이 더 많아졌다.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정보의 양은 100년 전 살았던 이들이 평생 접한 정보의 양과 비슷하다. 빨라진 생활은 더 많은 정보에 우리를 노출시킨다.

하루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스트레스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감정의 변화를 가져온다. 불안과 분노에 몸은 서서히 병들게 된다.

'연예인 병'이 있다. 잘난 척 하는 병이 아닌 연예인들이 자주 걸려서 생긴 병명이다. 바로 '공황장애'다. 불과 몇 년 사이 공황장애라는 병명은 가장 흔히 듣는 병의 이름의 되었다.

공황장애는 우리나라에서 가수, 배우, 개그맨 등 스트레스가 노출되기 쉬운 연예인들에게 많이 관찰되는 병이다. 그래서 '연예인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제는 '연예인 병'이라는 별명보다 '국민 병'이라고 부를 날도 멀지 않았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6주 만에 끝내는 공황장애 치유법』은 지나친 스트레스 반응으로 생긴 불안을 스스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다.

책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공황장애에 대해 바르게 알려준다.

"많은 연예인이 공황장애를 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황장애는 이른바 '연예인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대중을 의식해야 하는 연예인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8%가 일생에 한번 이상 공황장애를 경험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처진다는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대인은 공황장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2장은 공황장애와 함께 많이 나타나는 불안장애에 대해 알려준다.

"불안은 인간의 본능적 감정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불안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변에 위협이 없는데도 불안해하거나 걱정이 해결된 다음에도 계속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호흡근단이나 가슴 통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도 나타납니다. 신체통증에 대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어도 통증이 지속되고 불안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불안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3장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다.

"불안장애는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을 스스로 해소하기 위해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안, 공황장애는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빠른 치료를 위해 뇌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이루도록 약물(항우울제, 항불안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불안장애, 공황장애 초기에는 약물치료 하나만으로도 70% 이상 치료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장은 효과적인 인지행동 치료를 소개한다.

"불안이나 공황 증상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잘못된 생

각에 반박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입니다.

자기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처럼, 자신에게 반복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약물치료 후 스스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치료로 유용합니다."

5장은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에 좋은 근육 이완법을 소개한다.

"불안해지면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반대로 근육의 긴장을 줄이면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리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신이완법은 근육을 이완해 교감신경계의 활성도를 낮추는 훈련입니다."

6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호흡 치료법을 소개한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을 통해 공황 증상을 컨트롤하는 것이 호흡요법입니다. 호흡은 내 의지대로 빠른 호흡, 느린 호흡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작가인 조앤 롤링은 영국 퀸스병원에서 소개한 호흡법을 2주간 따라한 뒤 코로나19 의심 증상에서 건강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5초간 참았다가 다시 내쉬는 이 호흡법은 '마법의 호흡법'이라고 불립니다."

7장은 치료효과를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치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금

정적인 생각으로 자기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불쾌한 감정이나 슬픈 감정, 다른 사람을 너무 배려해서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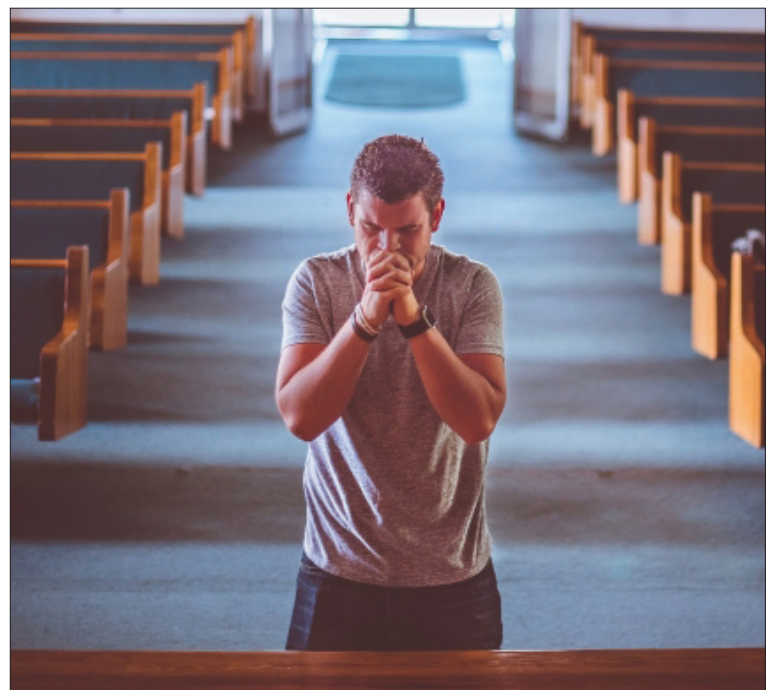
코로나의 영향이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 전(BC-before Corona)과 코로나 후(AC-after Corona) 시대를 나누어야 한다는 말도 생겨났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있다.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정신 질병들은 이제 특정 직업군의 병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병이 되었다.

예수님은 답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멈춰 기도하셨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삶이 새로운 힘이 된다.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멈춰 있는 것을 불안해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불안은 지나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온다.

멈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자.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메마른 내면이 하나님 앞에 멈춤으로 풍성해지길 바란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픽사베이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4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3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88** +Tax **0 Down** **\$26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4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199** +Tax **0 Down** **\$279**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02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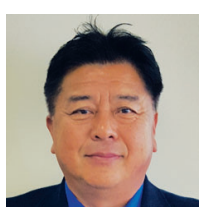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